韓中日불교 '화엄학'으로 통하다

주목! 학술서- 이시이 코세이의 〈화엄사상의 연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가 화엄교학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전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라 화엄학'이 미친 지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서가 발간됐다.

일본 고마자와 대학 이시이 코세이(石井公成) 교수의 〈화엄사상의 연구〉가 최근 우리말로 번역돼 발간됐다. 번역은 김천학 동국대 HK교수가 맡았다.

화엄교학은 천태교학과 함께 중국불교의 이론을 대표하는 교학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화엄교학이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며, 그 영향력은 지역을 넘어 현대 사상계까지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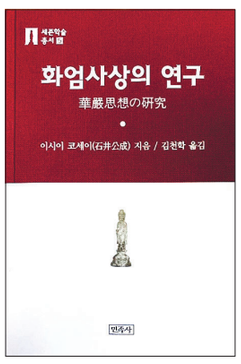
그러나 화엄교학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사종법계설을 비롯한 전통적인 교학에 근거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종법계설에 의한 구분이 정착되기 이전 화엄교학의 본래의 모습이나 화엄교학의 성립 사정 자체를 해명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시이 교수의 〈화엄사상의 연구〉는 동아시아 화엄교학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조망하고, 의상과 원효 등 신라의 승려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신라불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동아시아 불교사의 지형을 새로 그리는 등 화엄사상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입당하여 화엄종 2대 조사 지엄에게 사사하고, 동문의 후배인 법장 스님과 친교를 거듭했던 의상 스님이나, 또 신라에서 방대한 저술을 남긴 원효 스님이 중국의 법장 스님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단적인 예다. 이는 화엄교학이 당시 동아시아 사상 교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책에서 주목할 점도 이 부분이다. 이시이 교수는 신라불교를 하나의 조그마한 흐름으로 인식했던 종래 학자들의 연구와 달리 매우 역동적인 흐름의 중심에 두고 있다. 실제 저자는 〈화엄사상의 연구〉에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 원효, 의상 스님의 화엄사상에 대해 폭 넓게 기술한다.

저자는 제3장 '신라의 화엄사상'에서 의상에게 영향을 미친 지론교학의 중요성을 서술하고, 원효 화쟁의 근거를 찾았다. 특히 원효 저술의 저작 순서를 추정한 것은 원효 사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동아시아 화엄학 전개 조망
원효 · 의상 등 신라승려 연구
〈석마하연론〉 신라성립 주장
화엄 통한 교류사 확인 의미

의상의 '법계도'의 배치는 독특하지만, 그 구성에는 중국 시적(詩的) 연원이 있다는 사실과 이이상즉설(理理相卽說) 역시 초기 중국불교와 지엄에게 그 사상적 연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중국 화엄종 3대 조사인 법장의 화엄사상이 지엄과 의상, 원효의 사상적 영향 하에 구성됐으며, 신라 위찬설이 주장됐던 〈석마하연론〉에 대해 '신라성립설'을 주장하고 있다. 제5장은 앞선 주장들을 심화해 〈석마하연론〉의 성립 배경을 고찰하며 원효, 의상, 법장의 영향을 확인했다.

이시이 교수는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지론종의 화엄 관련 문헌에 주목하였고, 그것이 의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 덕분에 법장 작(作)으로 전해져 왔던 〈화엄경문답〉은 의상과 제자의 문답임을 지적할 수 있었다"면서 "원효 저작의 성립 순서를 추정한 것은 본서에 정리한 논문이 최초일 것이다. 〈석마하연론〉이 신라 성립임을 논증하는 등 한국불교 연구에 일정 부분 공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역자인 김천학 교수는 "이시이 교수는 중국과 신라, 신라와 중국 간의 상호 사상적 교류를 거쳐 일본의 초기 화엄이 성립됐다고 본다"면서 "향후 중국과 신라불교의 상호 영향 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신라에서 일본으로의 불교사상적 영향과 일본적 수용의 특성을 밝혀야 하는 사상사 · 인문학적 과제가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흥전리사지 탑비 주인공은 '신라 고승'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탑비 조각 중 7점을 접합한 모습. 이를 통해 측면 조각의 자세한 모양과 탑비 주인공이 귀족 출신 김 씨 성을 가진 스님으로 확인됐다.

통일신라시대 대찰(大刹)로 추정되는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탑비의 비편 일부를 접합하는 연구가 최근 진행됐다. 그 결과 탑비의 주인공이 확인되는 등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왔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고승의 탑비를 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흥전리사지 비석 조각은 홍영호로부터 기증받은 비석 조각과 불교문화재연구소, 강원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비석 조각 등 현재까지 16점이 확인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독립된 비편들을 해석 · 판독해왔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이중 14점을 한자리에 모아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7점과 2점이 서로 접합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조사된 14점의 비편이 3종의 다른 비석들과 혼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국립춘천박물관에 따르면 7점의 조각이 접합되는 고승 탑비의 경우 양 측면에 고부조의 조각장식이 있었다. 이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와 유사한 양식으로 그 형태가 화려하다. 다른 2점은 탑비와 표면마감, 서체와 자간 등이 고승 탑비와 달랐으며, 나머지 1점은 서체와 자간도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모두 세 종류의 비석이 혼재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국립춘천博 비편 접합 조사
9점 접합… 세 종류 혼재돼
등장인물 김 씨 '和尙' 연결
귀족 출신 승려임이 확인돼
향후 특별전시서 결과 공개

또한 고승 비편으로 막연히 추청되던 고승 비편의 주인공이 확실히 확인됐다. 그간 고승 비편은 계림 출신 신라 귀족 김 모 씨가 주인공으로 추정됐지만, 접합 조사 결과 스님을 의미하는 '화상(和尙)'과 연결됐다. 이에 따라 탑비의 주인공은 귀족 출신 김 씨 성을 가진 스님임이 확인됐다.

접합 조사를 통해 탑비 측면 조각의 형태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했다는 점도 성과다. 이는 통일신라시대 석조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립춘천박물관의 비편 접합 조사는 최근 10년간의 주요 발굴 성과를 전시하기 위한 자료 조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향후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굴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관 중인 비편 2점을 마저 인수하면 관련 연구를 더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이번 조사 사례는 따로 조사되고 보관된 발굴품의 통합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연구 기관 간의 협업이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3월 24일부터 일반 공개되는 특별전 '새로 발굴된 강원의 보물'에서 접합된 비석 조각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4월 5일까지 휴관이 연장됨에 따라 전시도 연기됐다.

신성민 기자

박물관 못 간다면 '온라인 관람'을

국립중앙博, 홈페이지에 온라인 전시관 개관

코로나19 확산으로 박물관 등이 전면 휴관에 들어간 가운데 온라인 관람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휴관 기간 중에도 온라인으로 박물관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go.kr)를 접속하면 초기화면에서 VR과 동영상으로 다양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실제 최근 종료된 '가야본성 칼과 현' 특별전의 경우 전시실 모습 그대로 VR로 재현해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주요 유물들을 선택하면 간단한 설명들도 제공된다.

동영상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다. 지난해 4월 개최된 '공주 마곡사 괘불전'을 박물관 학예사들의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새롭게 단장한 불교회화실의 불화들도 온라인으로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다. 지난 2018년 열린 '대고려전'의 영상도 제공돼 당시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온라인을 통해 박물관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에서 즐기길 바란다"면서 "박물관 외부의 석조유물정원은 개방하고 있으니 직접 관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 메인 화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국가 전면 지원

문화재청 시행령 개정… 17일부터 시행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월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초석을 놓았다. 향후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평론 '3월 열린논단' 취소

진정 국면까지 연기

불교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이 주최하는 열린논단 모임이 2월에 이어 3월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고 전국 사찰은 법회를 중단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열린논단은 지난달에 이어 3월 모임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 9001 인증기업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